朝鮮日報
2009년 11월 10일
504번 (7 월)

힐튼 남해, '월드 트래블 어워드' 3년 연속 2개 부문 수상

힐튼 남해 골프 & 스파 리조트는 올해 월드 트래블 어워드(World Travel Awards) 시상식에서 '한국의 리딩 리조트', '한국의 리딩 골프 리조트'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. 월드 트래블 어워드는 전 세계 여행사와 관광전문가들의 투표로 선정되며, 힐튼 남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3년 연속 2개 부문을 수상했다.

힐튼 남해 제공

이번에 월드 트래블 어워드를 수상한 힐튼 남해 골프 & 스파 리조트 클럽 하우스의 모습.

장 필립 자코팡 총지배인은 "2006년 한국 최초의 월드와이드 리조트로 개관한 이래 3년 연속으로 한국 최고의 리조트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"고 말했다. 힐튼 남해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도록 디자인된 객실과 1년 내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4계절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.

이성훈 기자 incut@chosun.com

Copyright © 2009 Chosun.com